

CEO Lounge

안철수연구소, 오석주 대표 'IMI경영대상' 수상



안철수연구소 오석주대표가 'IMI경영대상 중견·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 수상했다. 오석주 대표는 기술 자립도가 약한 국내 정보 보안 업계에서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순수 자체 기술로 세계 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V3 제품군과 온라인 게임 보안 솔루션인 '핵실드 프로'는 산자부 선정 '세계일류상품'으로서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IMI경영대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IMI)이 한 해 동안 우수한 경영 성과를 거둔 기업인들에게 시상한다. 글로벌 경쟁력, 지식경영, 기술혁신, 사회공헌 등 4개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경영자 각 1명씩 총 8명을 선정한다.

인터엠, 조순구 대표 1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선정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08년 1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인터엠 조순구 대표를 선정했다. 지난 1991년부터 음향·방송 기기 전문 기업 인터엠을 이끌고 있는 조순구 대표는 지속적인 R&D 투자로 인천국제공항

통신시스템은 물론 경부고속철도 음향기기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국내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빌딩·호텔 등 대형건물과 학교, 스튜디오, 콘서트 홀 등 공공시설에 활용되는 국내 방송시스템시장을 60%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미주 등 64개국 90개 에이전트와 거래하며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매출액의 8.25%를 기술개발에 쏟아 붓는 조 대표는 세계 최초로 15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윈도우 XP기반 메인컨트롤러 시스템을 개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고 수입검사용 간편 지그(jig)의 제작과 PCB설계 가이드북 작성, 자재 배치개선, ERP

시스템 도입 등으로 기술 및 품질수준을 끌어올렸다. 또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에 이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철저한 품질 경영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 경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엠펙트, 정수종 대표 이달의 무역인 수상



엠펙트 정수종 대표가 『제6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중소기업부문에서 수상했다. 정수종 대표는 1990년대부터 마그네슘 합금 분야의 가

능성에 주목, 끊임없는 R&D를 통해 2002년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한 0.6mm 두께의 노트북 케이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경기도 이전에 본사와 공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들어간 엠펙트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귀뚜라미보일러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부터 노키아 히타치 파나소닉 등 해외 글로벌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선을 확보한 상태다. 그 이유는 R&D 부문에 끊임없이 투자한 결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정하는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오는 6월부터 일본 JMC, 중국 YIWEI와 손잡고 마그네슘 정련 라인을 가동해 연간 매출을 100억 원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티맥스소프트, 박대연 CTO 대표이사 취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티맥스소프트의 박대연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새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대연 신임 대표는 이 회사 설립자로, 지난 1997년 기업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티맥스소프트를 설립한 뒤 CTO를 맡아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를 비롯 20여 종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대형 IT시스템에서 많이 쓰이는 미들웨어 제품 '세우스'는 최근 4년간 국내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박 대표는 SW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2005년 12월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티맥스소프트는 올해 매출 1천6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관리 솔루션 사업 강화, 산업별 특화 패키지 솔루션 완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